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8호 [루계 제25116호] 주제 104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당과 혁명사에 투기할 사변으로 이어서 겨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지난 35년 동안 우리 당이 주체혁명워싱턴의 민도로를 다지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긍지높이 충하하고 위대한 당의 기치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 역사적인 대회이다.

당 제7차대회 소집에 관한 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온 나라는 용암처럼 부글불을 끓고 있다.

10월의 대축전성의 높은 열단에서 언제나 당파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인민에게 깊이 헌신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밀음을 심장에 새기고 새로운 총공격전에 전민군민이 떨쳐나섰다.

우리 황철로 통계급은 이미 당 창건 70돐을 혁명적 대경쟁으로 맞이하기 위한 두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주체혁명생계계를 완비하고 철강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염려놓았다.

승리의 직선주로에 들어선 황철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뛰어나온다.

이길거리는 용광로의 불은 쇠물은 그대로 어머니당대회를 최상최하의 성과로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뜻은 피하고 기세차게 울리는 산소불리기의 우렁찬 풍음은 주체의 쇠물로 당을 밟들려는 황철로 통계급의 심장의 배들이 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간담재력을 충동원하여 철강재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 충정의 결의를 다지면서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충돌기할것을 전국의 로동계급에 열렬히 호소한다.

이제 당 제7차대회까지는 5개월 남짓한 기간이 있다.

이 나날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힘이 총동발할 때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할 참으로 중대한 시기이다.

우리가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은 애국충성의 탐방을 이스며 있는 향심의 결정체, 의의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며 자기 한생에서 가장 뜻깊고 값진 노력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역사적시기로 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4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명도를 충실히 받아들이며 혁신의 가장 준엄한 시련을 끊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며 세계가 경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틈틈없이 광활하고 악랄하였지만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히려 천번배로 더져지고 군사경제적 투쟁으로 당에 대한 힘을 더해졌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려보신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하루빨리 일찌세우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이며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기로 전개된다.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존엄을 위하여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선봉에서 끝은 기를 높여 그들과 함께 기념사업장을 짹으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이라는 최상의 밀음을 안겨주셨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통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술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맑은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이 헌신되어있고 나리의 맘아들, 주체혁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혁신사명을 다해나가기 바라는 당의 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자 황해제철련합기업소로 통계급 커기 모임 진행, 전국의 통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소집에 관한 객동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전체로 통계급은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갈 비상한 열의에 넘쳐있다.

혁명의 날마다 철강재 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황철의 둘째수는 지금 밭바람에 뜻을 달고 폭풍처럼 내달리는 맹렬한 둘각정신으로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어머니당대회를 최상회대의 성과로 맞이할 혁명적 기상으로 용암처럼 뛰어번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로 통계급 커기 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모임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민족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모임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 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자!』, 『금속공업부문의 통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계적자가 되자!』의 구호들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 각로통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들,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모임에는 박태덕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임훈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혁명선사들, 로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노래 주제로 모임은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오순호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 창건 일흔돐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승리의 5월을 향한 새로운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로 통계급 커기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혁명의 준엄한 날마다에서 강철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만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양심 기동을 세워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로 통계급 커기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혁명의 준엄한 날마다에서 강철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만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양심 기동을 세워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혁명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로 통계급 커기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황철로통계급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밀을 파악하고 있어 우리 식의 용광로에서

붉은 쇠물이 폭포처럼 뛰어오는 회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들은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배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나아가고 그에 따라온 것은 황철로통계급의 본래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힘있게 뛸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남 흥

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남흥이 끓는다.

정신이 번쩍 드는 혁신의 새 소식들이 끌어내고 전해지던 그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우리 당역사에 특기 할 사변으로 빛나온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향해 전진 또 전진하는 남흥 청년 화학련합 기업소의 벅찬 숨결은 뜻깊은 당대회를 전제 숨을 농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풀어놓고 있는 이곳 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직적 사업과 함께 놓고 생각할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험난한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 마냥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현 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제7차대회를 빛나는 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목표부터 대답하고 통이 크게 세웠다.

여기서 당위원회가 중시한 것은 당대회에서 당위원회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당위원회는 결의 목표를 세우면 당원들이 충동원된다며 수반개의 미처판을 봄을 기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이다.

하여 체형콘베이제작전투를 울진으로 끌어내고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결의 목표는 다시 작성되었다.

이렇듯 당일 군들이 예비는 군종의 심장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진실력을 최대로 발동한 결과 기업소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할바없이 높은 목표들을 내세워 되었다.

당위원회에서는 파악기술을 위력한 무기로 둘어쥐고 결의 목표수행을 위한 품질과 기술을 열어 흐소하였다.

이번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는데는 경제사업과 함께 당위원회 군들은 대중과 함께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혁신적인 단도 람구하였다. 방대한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 실현을 위한 파악적인 담보가 안방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현 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 임원들은 생활조선건설판 관련 한 목표도 대단했다.

고기생산능력을 년간 1 000만 톤으로 세고, 남흥원 건설 완공, 8 0hp 고기제 3회 전조, 1 0정 보의 박막온설건설 완공, 1 0 0세대의 살립집 건설…

현 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방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투를 보다 앞당겨 힘껏 펼쳐주고 전투를 전개해 왔다.

방도를 보색하던 끝에 떠벌 판가공을 군중적으로 내밀어 보자는 애니 제기되었다. 당일 군으로부터 시작해 기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이 충동원된다면 수반개의 미처판을 봄을 기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일군들의 지도사업요강에 전투 목표수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정하고 반영하고 매주 어김없이 그 정형을 통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련합기업소, 직장, 작업반 전투목표를 향해 당일 군들에 대해 계시하고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파악기술을 위력한 무기로 둘어쥐고 결의 목표수행을 위한 품질과 기술을 열어 흐소하였다.

주체비료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최고수준의 비료생산목표를 내걸었으며 3기의 7 51순 환비등총보이어 기본건설 완성, 가스발생 2 0대 증설, 체형콘베이제작전투, 아르곤생산공정 전설을 비롯한 방대한 목표들을 내세워졌다.

당일 군들은 직급 현지에서 결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대로 대처해 세워주면서 전투지를 확장해 나가고자였다.

당위원회 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세는 7 51순 환비등총보이어 기본건설은 사실상 전투장에서 뚜렷이 파시되고자였다.

생산에 필요한 증기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3기의 7 51순 환비등총보이어 기본건설은 사실상 전투장에서 뚜렷이 파시되고자였다.

당일 군들은 당일 군으로부터 당위원회 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세는 남흥의 비약과 전진을 힘 있게 추동하고자였다.

전투에는 목표, 치밀한 작전 밀에 전개되는 당위원회의 위력한 조직정치사업과 더불어 끌어들이고자였다.

당일 군들은 당일 군으로부터 당제7차대회를 전개하는 전투로 힘껏 펼쳐주고 전투를 전개해 왔다.

당일 군들은 당일 군으로부터 당제7차대회를 전개하는 전투로 힘껏 펼쳐주고 전투를 전개해 왔다.

본사기자 김순영

화선에 나가 돌파구를 열자

대안전기공장 조급당위원회에서

보내줄 전기설비생산이 원료, 자재 등의 부족으로 제자리길음을 하고있던 그들은 당제7차대회 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된 때로부터 하루 하루가 지난 시기와는 전혀 다른 비약의 시간으로 흐르고있다.

얼마전 삼지연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와 건설대상들에 필요한 대용량전기설비들이 대안 땅을 떠나갔다.

비상한 장조의 열정과 현신의 땅이 뜨겁게 어려웠는 설비들을 떠나보내는 대안사람들의 가속화에는 격정의 파도가 솟구쳐올랐다.

종종같은 생신주기와 수입을 살피며 끌려온 미처판을 그들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냈던 것이다.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대모의 맨 앞자리이며 일군들은 생님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대의 역할을 하는 공장, 그 앞장에 우리 일군들이 서자.

당 행정일군들은 이런 각오를 알고 화선에 나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상공세를 대체해 들이였다. 분위기고고 조시기는 힘있는 노래소리가 전투장마다에서 낮에 땀을 흘리며 생신주기 수십일이라는 기

이어 울려 퍼지고 종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는 직관선정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돌파구의 맨 앞장에는 책임 군들이 서 있었다.

전투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밤이 많도록 뛰어나다니는 초급당비서와 공장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면서도 자체보장 사업을 스스로 맡아나선 지배인, 대상설비생산과 기술혁신과 수행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기사장은 교대 없는 전투원이 되어 대중을 이끌었다.

책임 군들의 협의를 통해 투쟁 기풍은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어 공장의 일군들은 물론 모든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 치밀한 조직사업, 맡는 이신작은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졌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당제7차대회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대안의 비상한 기상이고 숨길이며 밤길을이다.

본사기자 한영철

애국충정의 불길 높이 더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자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의 결기 모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신장에 열화 같은 애국충정의 불길을 지펴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결사 광활하게 전개하는 보고에 이어 창고, 공장, 업무부문 현대화의 기치를 남기며 공장답게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비약을 이룩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탕으로 세우고 경영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적 교양실과 혁신소개실, 도안실, 사출작업반, 갑피직장, 제작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기화, 생활문화를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계에 맞게 확립하는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에게 대한 멀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신발생산에서 전제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되게 될 영광의 5월을 떠나게 장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인 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 울리는 천지가 창작가들의 열왕적인 박수축에 박수되었다.

그들은 『제봉산』 상표를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을 풀어내고 세계와 탕히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모를 높여온 신발을 광활하게 전제된다.

그들은 3대 혁명소조원들과 함께 일하며 대중적 기술혁신을 통한 신발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려 생산물품질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에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은 3대 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입니다.』

이곳 고급당위원회가 3종 40회로 되는 뜻깊은 울해에 3대 혁명수행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단위가 있다.

얼마전에 3종 3대 혁명붉은 기를 수여 받은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이다.

이 단위가 대중운동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급당위원회가 3종 3대 혁명붉은 기를 향하여 전투를 전개하는 전투장에서 뚜렷이 전개된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제작소의 책임자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 바다향기 차넘치게 하자

백두의 칼바람에 만선기 펼칠 휘날려 가리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원산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

온 나라에 사회주의 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 일년이고 어로 전투에 한시처럼 떠는 원산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백두의 칼바람에 둑을 던들면 이들은 날마다와 싸우며 어장마다에서 치렬한 둑격전을 벌였으므로써 날간 물고기잡이 계획을 기한전에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오늘의 어로경이자 곧 당정책 응용전이라는 것을 실증깊이 자각한 이들은 인민근대 수산부문의 혁신기풍을 따라به위 통해 천리를 주름잡으며 국수충정의 배고동

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의 보신주의, 옥련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집중으로 전투에 진입한 이들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진 물고기잡이 목표를 스스로 또다시 근 2배로 높여 정할 때 남보다 무엇이 많아서였던가, 그 누구의 지원을 기대해서였던가.

물고기 대 풍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인민근대 수산부문 어로전사들을 보라. 우리도 그들처럼 카비랑정신으로 떨쳐나온 헌신적인 배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물려라!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끓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끓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사업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선장령역사, 장정현동무의 고기배들

그들을!

거망과 드란작업을 펼쳐적으로!

지난해 침중으로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나이지 숙한 선장도, 나어린 어로공도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알고 서로로서 피翕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전투초소를 차지하였다.

매일 일의 자랑찬 실적이 겨우 일어난 이후로는 젊지가 아니었다. 맨튼 바다바람, 때없이 밀려드는 세찬 바다, 물고기떼를 마주하고 따라잡으려면 날마다 우

에서의 연 수십 일간...

이들이 벌린 침투로更是 벌려온 날씨와의 싸움, 사나운 풍파의 대결이기 전에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으로 끝나는 어로전사들의 물고기잡이 전기로 전진하는 경험을 살려 물고기잡이 시간과 기망장 어획량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적극 탐구되고 실속있는 대책들이 따라섰다.

중동사태가 국제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중동지역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었다. 몇 해 전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의 정권봉기로부터 시작된 내전과 여러 정치세력들과 종족 및 교파들 사이의 치열한 물리적 충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떤 나라는 국도의 정치적 혼란에 빠져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적 기능은 완전히 미비되고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었다. 지역 나라들의 정국은 파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

유럽적인 전통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뿐이며 정정한 고향을 떠나 유랑의 길에 오르고 있다. 술한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가고 있다. 유럽은 피난민대란으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되었다.

유럽으로 건너간 피난민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한심한 수용시설에서 활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불법이 주민』, 『도노무적』로 배치받고 있다. 차량들에 걸쳐서 러시아에 걸려다니는가 하면 배수를 맞는 등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피난민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되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의의 성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여 하루빨리 중동지역 정세가 안정되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일부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어 중동지역 정세가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되었는가의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을 표시할 것도 놀라워할 것도 없다. 그것은 중동지역 정세의 악화와 피난민 대란이 둘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몇 해 전부터 중동의 일부 나라들이 정책 작성에서 주대를 세우지 못하고 서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식의 발전의 길을 포기하였을 때, 여러 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났을 때 벌써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빛어질 것이라고 예전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중동에서 벌어진 사태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동나라들로 말하면 많은 자연부

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생활물이 많은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또 이 나라들은 이와 비슷한 수법을 적용하였다.

미국은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것을 자랑하면서 제단에는 국력을 강한 나라라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리비아는 놓고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유생산국으로서 지난 시기에는 원유 수출로 국유화하고 그것을

세 사회건설을 위한 적극 이용하였

다. 경제를 비비아식으로 진실화하는

구호로 원유공장을 중추로 하는 민족경제로 태동 축성 사업에 신속하게 힘을 넣어왔다. 반면 자주적인 힘장을 겨우하고 미국의 반리비아 핵동에 맞서나가면서 국방력 강화에 힘을 넣었다. 이것이 좋은 결실을 맺어 리비아인들의 생활은 나날이 유족해졌으며 사회적 단합이 이루어졌다.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국방력도 비교적 강한 나라로 인정되어 있었다.

오늘 중동지역 나라들에서 사회정치적 안정이 파괴되고 피난민 위기가 발생하게 된데는 이 지역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환상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대로 서방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데 원인이 있다. 이 지역 나라들은 세 사회건설과 함께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되거나 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원조』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어려운 생각을 하였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 매개 나라마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자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정치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책수립에서 언제나 주권을 뚜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각종 방송과 출판물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확장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중동나라들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않고 서방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부르죠아 사상문화에 맞는 정치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책수립에서 언제나 주권을 뚜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결과 이 나라들은 온갖 퇴폐적인 부르죠아 사상과는 끝이 달라지고 육아강식의 생존경쟁이 부식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심화시켰다. 이것은

그대로 교파간, 종족간의 대립과 모순으로 번져 있으며 사회는 사분오발로 되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그 무슨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사헌회에 일어난 『색갈혁명』은 여러 중동지역 나라들을 유혈적인 민족 및 종족 분쟁과 무질서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물어넣었으며 오늘과 같은 피난민 대란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세 가지에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자이며 중동지역을 소탄스럽게 만들고 피난민 위기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내정 간섭과 동반으로 같은 학살한 사례가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며 응당한 책임 추궁을 하게 될 것이다.

중동나라들의 실태는 자주적인 세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반동적인 부르죠아 사상문화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들판에 놓아두는 것과 같은 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검은 속임을 보지 못하고 설마 하면서 당시 씨씨를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몽락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피난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동나라들은 차주적인 세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참으로 풀이로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첫째로 물체로 국방력 강화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중동지역의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 간섭과 침략의 대상으로 된 것은 바로 자기 힘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다.

지난 날에는 침략의 걸작이 노릇을 하던 제주주의 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놓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통하여 군사적 유통으로 양립을 침략자 목적으로 순집에 달성하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상문화적 침습과 심리 모략전으로 내정 간섭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색갈혁명』을 통하여 비외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끌어들여고 청탁을 세웠다.

미국은 이것을 놓고 『무렬혁명』이라고 내놓고 말하고 있다.

중동지역 나라들은 서방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반동적인 부르죠아 자유화비판, 사상문화적 침투를 물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을 솔市场主体를 통해 변질시키고 문화도덕적 부

폐를 조성하였다. 부르죠아 사상문화에 몇몇은 자들은 서방에 환상을 가지고 그들의 앞잡이로 끌려들여져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길로 나갔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식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동지역 나라들에서 거슬리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길로 나갔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식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중동지역에 보여주는 역사적 종화이며 세계에 울리는 경종이다.

리학 남

미국을 비롯한 서방식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혹하여 적지 않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옹호』 등 허율 좋은 구실 밑에 내정 간섭

현실해 가는 너성들은 없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 나라 앞에 흥허로 내세우는 모성 영웅

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일터마다에서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가는 너성파학자, 교육자, 혁신자들…

하기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

보도들은 한가정의 끝으로 만

이 아니라 사회의 끝, 나라의 끝으로 떠나는 우리 어머니들의 행복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네리 소개하고 있다.

도이 월란드 반제연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효능높은 의료약품을 국가로 부터 보장받고 있다. 온로드에서 조선족 너성들이 위대한 김 일 성 대 원 수 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품속에서

이미 머물고 있던 전쟁체력까지 포기하는 바보짓을 하였다.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

영국 선진 정치인들이

국제적인 존엄을 지켜낼 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동지역 나라들은 차주적인 세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시사를 해주고 있다.

그것은 외세에 대한 환상을 죽음으로서 사람들의 정신을 솔어놓음으로써 문화도덕적 부

폐를 조성하였다. 부르죠아 사상문화에 몇몇은 자들은 서방에 환상을 가지고 그들의 앞잡이로 끌려들여져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길로 나갔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식 『민주주의』를 배

거하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 이 나라들은 온갖 퇴폐적인 부르죠아 사상과는 끝이 달라지고 육아강식의 생활을 강제로 하게 되었다.

일본군 성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우리는 일본군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

지역 나라들이 서방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